

# 북스

Books

## 순수하고 때로는 냉혹했던 혁명가의 삶

### 체 게바라 혁명적 인간

존 리 앤더슨 지음

아르헨티나 출신 남미 혁명 영웅 체 게바라(1928~1967년). 쿠바 혁명을 이끈 게바라는 볼리비아 산악지대에서 게릴라 부대를 조직해 활동하다 붙잡혀 총살당했다.

이후 많은 시인과 철학자들은 열정적인 추도문으로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게릴라들은 전투에 나설 때마다 게바라가 그려진 깃발을 차켜들었다.

하지만 최근의 사람들은 게바라의 혁명 이념에 대한 이해와는 달리 그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로 그를 기억하고 있다.



체 게바라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다룬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한 장면.

라의 유골이 쿠바와 아르헨티나 공동 감시팀에 의해 발견됐다.

이 책은 체 게바라에 관한 온갖 감성의 찌꺼기를 걸러낸 진정한 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자의 눈으로 그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수많은 증언을 통해 혁명가의 진솔한 삶을 그려냈다.

게바라는 아르헨티나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의대를 졸업하지만 라틴아메리카와 제3세계 민중을 짓누르는 빈곤과 불의를 종식시키기를 꿈꿨다.

책에는 게바라의 혁명가다운 모습과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모두 담겼다. 정부군의 기습을 받고, 탄약 통과 구급상자 중 하나 만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게바라는 서슴없이 탄약통을 선택한다.

또 배신자를 앞장서서 처형하는 모습 등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게바라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일기장에 첫 번째 배신자 에우티미오 게라의 처형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 상황은 대원들은 물론 에우티미오에게도 불편했다. 그래서 내가 32구경 권총으로 그의 머리 오른쪽을 한 방 쏘아 문제를 종결지었다. 오른쪽 머리로 총알이 빠져나오면서 구멍이 생겼다. 에우티미오는 잠시 숨을 헐떡이다가 죽었다.”

게바라가 단순히 낭만적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때로는 냉혹했던 혁명가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신화 뒤에 감추어진 인간, 실제의 체 게바라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플래닛·4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우주개발 경쟁 등 풍자 '그랜드 펜윅' 개정판

그랜드펜윅은 유럽의 작은 가상 국가이다. 이 나라는 포도주로 살림을 꾸리는데 포도 작황이 너무 부진하자 포도주에 물을 타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견해차로 '희석당'과 '반(反)희석당'으로 갈라져 으르렁거린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나라 관료들은 미국과 전쟁을 한 뒤 빨리 패하고, 패전국 지위를 얻어 복구를 지원받는 '월요일 전쟁-화요일 항복-금요일 복구' 전략을 세우게 된다.

강대국의 정치 논리를 꼬집은 '뉴욕 침공기', 자본주의 맹점을 비판한 '월스트리트 공략기', 우주 경쟁을 벌이는 강대국들에 일침을 가한 '달나라 정복기', 석유 시장의 비리를 꼬집은 '석유시장 정찰기' 등 4권으로 나왔다.

〈뜨인돌·각권 1만2천원〉



지난해 출간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는 일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8개월 만에 백만부 이상이 팔리며 한국 출판사상 최단기간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3권을 기다리는 팬들은 그 궁금증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1·2권을 먼저 읽은 독자들을 감동하게 했던 '1Q84 3'이 '드디어' 출간됐다. 반응 역시 빠르다. 5일 현재 초판 10만부가 모두 판매됐고, 1권과 2권 역시 추가 인쇄에 돌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달라진 구성이다. 1·2권에서는 남녀 주인공 덴고와 아오마메가 한장씩 번갈아



### 1Q84 3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새롭게 등장한 우시카와, 덴고·아오마메 추적하는데...

가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데 비해 3권에서는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중심에 놓여 세 사람의 이야기가 번주된다.

세 사람이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각 인물의 스토리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치밀하게 얽힌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우시카와'가 덴고와 아오마메를 추적하는 인물이다보니, 쫓는자와 쫓기는 자의 긴박감이 제대로 느껴진다.

'1Q84'의 가장 큰 매력은 한번 책을 잡으면 놓기 어렵게 만드는 '강한 스토리의 힘'이다. 1·2권의 인상이 워낙 강한 터라, 3권의 스토리 전개가 조금 험령해 보일 수 있지만 1Q84의 세계를 떠나고자 하는 아오마메, 아오마메를 뒤쫓는 '선구', 아오마메를 지키는 다마루와 노부인,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비밀을 밝혀려는 덴고, 그런 덴고를 수호하는 후카에리

등 등장인물들은 여전히 흥미롭다.

전작에 등장했던 아나체크의 음악 '신포니에타'가 뒤늦게 주목받은 것처럼 3권에서 아오마메가 읽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1·2권이 출간된지 1년 가까이 되다 보니, 오래 전에 읽었다면 3권을 펼치기 전 다시 한번 읽는다면 훨씬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듯하다.

책을 읽고 나면 4권 출간 여부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된다. 하루키는 4권 출간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건 '그전에도 이야기가 있고 그 후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학동네·1만5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책



▲팬이야=문학사상사 청년문학상, 대산청소년문학상, 세계청소년문학상 등을 휩쓸며 문학 천재라는 평을 들었던 진아리의 장편소설. 기존 작품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이번 소설은 평범한 계약직 회사원인 스물아홉 여성 직장인 정운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녀와 다양한 주변인물들의 일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노블마인·1만2000원〉



▲여행자의 유혹=산티아고 관련 책을 펴낸 가수 박기영, '퍼펙트 프라하' 등 다양한 여행서를 출간한 최미선·신석교 부부, 미로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김미정, 짝을 이뤄 세계 곳곳을 여행한 박사와 이명서 등 열혈 여행가 12명이 풀어놓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 여행지에서 느꼈던 흥분과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좋은생각·1만2000원〉



▲바이퍼케이션 1·2=850만부가 팔린 '퇴마록'의 저자 이우혁이 7년만에 펴낸 장편소설. 제목은 원래 불확실한 결과를 뜻하는 수학용어로 작가가 찾자 하는 인간 존재의 개념, 쉽사리 판단내릴 수 없는 존재를 상징한다. 미국의 한 소도시를 배경으로 형사반장과 전체 프로파일러가 살인사건을 쫓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해냄출판사·각권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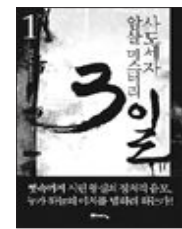
▲글로벌 세상을 호령하다=한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서울대 이종목 교수가 조선의 문학과 예술을 꽃피운 명문장가들의 글을 통해 인생을 이야기한 책. 아름다운 풍광만 볼 수 있다며 죽음을 불사했던 김중수, 한평생 책만 보고 살았던 장훈, 눈감고 누워서도 천리를 유람했던 이익이 등장한다.

〈김영사·1만3000원〉



▲시골벽적인 철학자들 죽음은 오히려하다=철학자들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답. 쇼펜하우어, 니체, 카뮈, 사르트르 등 이미 '죽음'을 맞이한 철학자들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다. 인간이 죽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진부한 명제일 수 있지만 철학자들은 늘 죽음을 이야기했다.

〈함께읽는책·1만5000원〉



▲사도세자 암살미스터리 3일 1·2=비극적 인물 사도세자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소설이다. 각종 사료에서 찾아낸 역사적 사실들을 엮어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 기묘한 상상력을 덧입혀 완성했다. 왕실의 정치와 음모가 흥미롭다.

〈예담·1만원〉



▲스물다섯, 나를 즐겁게하는 의외의 행복=꿈 많고 욕심 많은 20대 여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 투자로 인생을 무한대로 즐기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건강, 인간관계, 취미생활 등 쉽고 단순한 아이디어로 무료한 일상을 탈출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

〈명진출판·1만2000원〉

▲약처에게 바치는 레퀴엠=기쁜 마누라들에게 놀러 사는 네 남자가 아내를 죽이는 법을 소재로 소설을 쓰고 그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아카가와 지로의 장편소설. 전직 소설가, 기자, 시나리오 작가, 시인이 이 불온한 생각을 실천하는데...

〈살림·1만2000원〉

